

사물과 사건의 기억 강석호

요즘 나는 '모노반(모노 엘피-반)'의 매력에 빠져있다. 이미 6-70년의 시간이 흘러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은 '반'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모노반'을 구하려 무작정 발품을 팔아 보기도 하고 무모하게 이베이를 통해 몇 장을 구해 보기도 했다. 물론 '반'에 수록된 곡들과 연주자가 마음에 들어 구매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선곡보단 '모노반'의 녹음방식과 현재 운용되고 있는 앰프, 및 스타일러스 상태와 카트리지 그리고 승압트랜스와의 궁합이 '반'을 선택하는 기준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차츰 알아 갈 뿐이다. 그럼에도 난 LP 전문점에 쫓그리고 앉아 한 두어 시간을 뒤적거리고 있다.

작업실 한편에서 퍼지는 음악은 때론 맑게 들리기도 하고, 수수하나 진득한 뉘앙스를 가지기도 한다. 한 음, 한 음이 이어져 전달되는 곡은 나의 귓가에 곡의 서사를 속삭이는 듯하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음을 듣는 순간, 이전의 음이 기억되고, 그 다음에는 기억된 음이 기억되고, 그렇게 현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과거의 연속적인 흔적들을 포함하게 된다. 후설은 이러한 보존과정을 통한 현상이 '시간을 구성' 한다고 봤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당신이 서 있는 위치와 환경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각각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그리고 나에게 시간이란 무엇일까!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본질에 다가가려 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날들을 보냈음에도 내가 지각할 수 있는 보통의 시간은 하루하루를 세는 단위에 불가하다. 하루를 24시간으로 1시간을 60분으로 1분을 60초로 나누거나 더한들 나에게 별 의미 없이 다가온다. 그것보단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로서의 이해와 사건들 간의 관계로 형성된 순간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뿐이다.

오늘 오후에 '일식'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 시간을 확인했다.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은 지구와 달, 그리고 태양이 일직선상에 서는 정도에 따라서, 물과 풀잎 같은 사물들의 반응과 변화가 궁금했다.

평소에 지각되는 햇빛과 다른 차이를 가지게 될 때, 나는 그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밤하늘에 숨쉬듯 빛나는 별", "하늘과 바다, 그 경계의 모호함", "눈물나게 찬란하고 얽은 연꽃빛 잎새", "가난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절름발이", "상실에 대한 막연한 슬픔", "숲 속의 습기와 온도 그리고 해방과 압박", "전쟁에 대한 비현실적 두려움과 회피",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사물, 혹은 사건의 기억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 적어도 난 그런 것 같다.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프로세스들은 기억을 통해 자아의 존재를 확인 시켜준다.

장기간의 기억이 축적 되어버린 사물과 찰나의 순간에 이미지화 된 사건을 관찰하며 표현하고 있으면 감각의 이면에 다다르게 됨을 느낀다. 작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다. 거기엔 분명, 그것보다 중요한 변수들이 공명효과를 만들어 낸다. 이런 현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

기도 한다. 나에게 익숙한 음악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음들의 변수로 지루함도 새롭다. 어쩌면 나도 그것을 지향함에 작업을 지속하고 있을지 모른다. 난 언어로 풀어 낼 수 없는 놀변의 감각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 그 둘이 사건을 기록하는 방법과 사물을 대하는 태도, 그 무엇이 중요할까!